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재추진 논란

광주시 일몰제 앞두고 철차 진행
2013년 우회 건설계획 철회
환경단체 “영향평가 다시 해라”



지역 환경단체가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북부 일곡동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실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재추진키로 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한동안 중단했던 북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사업 종료 시한(6월)을 앞두고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 등을 들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 한새봉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7년여 만인 최근 들어 우회 건설 입장을 뒤집어 한새봉 관통 설계계획을 추진키로 하면서 반발을 불렀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11일 오전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의 북부순환도로 1공구 실시계획 추진과정에 법적, 행정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짚고 나가야 한다. 지난 2009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11년이 지난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광주시는 한새봉을 우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선이 사라지면 향후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벌이고 한새봉 우회도로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측은 이와 관련,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이어지는 본촌동과 양산동 등지에는 8200여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적

이라며 "기존 2개의 터널을 하나로 줄이고 한새봉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의 길이를 연장하는 일부 설계 보완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공구와 1공구는 하나의 사업으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전임 강운태 시장 재임시절 발표했던 한새봉 우회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더러 국토부가 용인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총 예산 1788억원이 투입되는 북부순환도로 건설공사는 지난 2015년 도동고개에서 일곡교차로까지의 2공구가 완공됐으며, 완공된 2공구와 달리 1공구는 한새봉을 관통하는 실시계획으로 인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며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선이 사라지면 향후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벌이고 한새봉 우회도로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전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5·18 위원회' 운영

5·18교육 학습보조자료 보급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등 지원

전남교육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교육위원회'를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2017년 9월,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매년 5·18민주화운동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5·18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5·18교육에 관한 교육감자문을 위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라 송영석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음운섭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최선국 전남도의원,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김삼윤 신안해양과학고 교장, 정경호 순천복성고 교사,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각 기관 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육위원회는 5·18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3·4학년용, 5·6학년용 학습보조자료(교과서)와 활동지를 보급해 교과·장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토록 했다.

또 5·18 기념주간 운영, 5·18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오월 도서 읽기 대회, 찾아가는 오월연극, 청소년 미술 공모대회 등을 심의했고, 교원 역량 강화 지원과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도 교육청은 5·18 40주년인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단계적 등교개학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율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과장은 "전남 곳곳에 5·18정신이 기려 있는 장소와 인물이 많다"며 "송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다문화 학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광주교육청이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을 위해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5월부터 지역 초등학교 23곳과 중등학교 5곳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는 원격수업으로, 등교 개학 후에는 대면수업으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전면 등교 수업을 하는 오는 6월부터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멘토링'을 진행한다. 또 초·중·고 다문화·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대학생과 연계해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다문화·탈북 대학생 멘토링'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한국 문화 이해 및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 학급'은 영천초를 포함해 고려인 마을에 인접한 대반초·월곡초·하남중앙초·하남중앙초병설유치원에 10개 학급이 개설돼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교사 65% "교육정책에 현장 의견 반영 안돼"

교총 스승의 날 설문조사

교사의 3분의 2 가까이가 교육당국의 정책에 학교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초·중·고교사 90% 이상은 돌봄교실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일하는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0일자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나 교육청의 교

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0.6%가 '별로 그렇지 않다', 25.2%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65.8%가 부정적인 답을 내렸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8%였고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7.1%와 0.4%였다.

초·중·고교사에게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묻자 79.3%가 '지자체'를 꼽았다. 민간단체·기관을 고른 응답자는 15.7%였고 지금처럼 학교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에 그쳤다.

'교원이 잘 보호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1.0%가 '별로 그렇지 않다'(38.0%)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23.0%)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배임 고발 교사 품위 위반" vs "공익제보 보복 징계" 광주 사립고, 교사 해임 중징계 '시끌'

2018년 교육청 위탁채용 교사
교사노조 등 징계 무효화 촉구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육청 위탁채용 교사의 해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 측은 "배임 중재 미수 혐의로 고발돼 교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했고, 지시 불이행 등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교사와 교사노조 측은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B교사는 지난 2018년 시교육청 1차 전형, 법인의 2·3차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근무경력 2년 2개월 된 교사다.

법인징계위는 B교사가 2018년 12월, 시험문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업무에 소홀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상급자 지시를 '괴롭힘'이라며 거부하고, 동료간 협

업도 미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인 측은 징계위원장과 해당 교사에게 보낸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B교사가 수 천만원대 배임 중재 미수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돼 교사로서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상습 체벌 등 교원 4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해임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전 이 사장이 B교사에게 정규 교사 채용 대가로 뒤통을 요구했다가 6개월 실행을 선고받는데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본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역 교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교원 소청 심사 등 징계 무효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청심사 청구와 부당노동행위 제소와 함께 학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청 특별감사,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릴레이 면담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B교사에 대한 SNS 응원과 구명운동이 진행돼 파장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얼마만이나...다시 문 연 도서관 도서관 부분개관 첫날인 11일 광주 북구 중앙도서관 로비에 새롭게 설치된 어린이 전시 작품 '내 꿈을 펼쳐라'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색지를 이용한 나비 소품을 붙이고 있다.

도서관 부분개관 첫날인 11일 광주 북구 중앙도서관 로비에 새롭게 설치된 어린이 전시 작품 '내 꿈을 펼쳐라'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색지를 이용한 나비 소품을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